

200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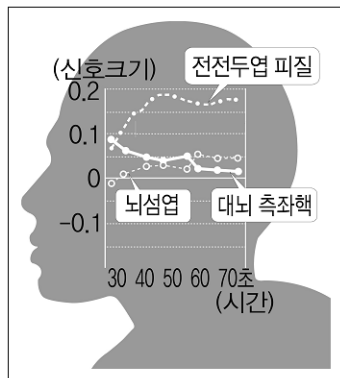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대화의 마지막에서 남학생이 지목했을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땀날 성질내서 미안해. 저번에 니 생일날 선물한 목걸이 ~♪
- ② 그 모습이 자꾸만 좋았어요. 작은 설레임 하나로 행복했어요. ~♪
- ③ 사랑아 가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 널 부르다 또 슬픔에 목매어도 ~♪
- ④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네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욱 ~♪
- ⑤ 고마워, 내 빈 공간을 메꿔 주어. 왜 너를 이제야 보내주었는지 원망하지만 ~♪

2. (물음) 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을 구매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 ②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③ 상품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 ④ 상품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⑤ 상품을 구매한 후에 활용하는 방안을 상상하는 상황입니다.

3. (물음)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끼리 묶은 것은? [1점]

- < 보 기 >
- ㄱ. 우리 국민의 독서 생활화 방안
 - ㄴ. 우리 국민의 한 달 평균 독서량
 - ㄷ.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독서 분야
 - ㄹ. 우리 책이 미국 책보다 무거운 이유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해의 어학 연수'와 관련하여 여자 교수가 말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 ② 신뢰하기 어려운 어학 연수 기관이 많다.
- ③ 학습 효과에 비해 외화 낭비 요인이 더 크다.
- ④ 현지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⑤ 단기간에 거둔 학습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5. (물음) 두 교수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자는 단정적인 어조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② 남자는 체험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남자는 질문 형식을 빌려 상대방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여자는 동일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말을 잇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 6 다음의 착안점을 바탕으로 관련 소재들을 연상한 후, 이를 '인간의 삶'에 적용해 보았다. 사고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은?

착안점			
ㄱ. 모양은 비슷한 점이 있어도 쓰임이 다른 도구			
ㄴ. 모양은 달라도 동일한 목적 아래 세트로 구성된 도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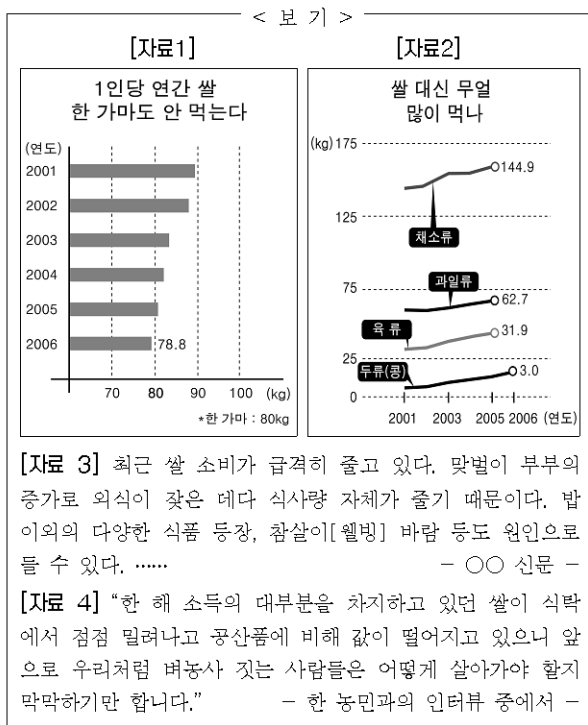
관련 소재 연상하기			
a 	b 	c 	d 
절구통 - 절구공이	집게 - 가위	실 - 바늘	형광등 - 백열전구

↓

'인간의 삶'에 적용하기
가. 틀 속에서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나.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각기 다르게 살아가는 삶
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협심하며 제 역할을 다하는 삶

① ㄱ → (b, d) → 가 ② ㄱ → (b, d) → 나
 ③ ㄴ → (a, c) → 나 ④ ㄴ → (a, c) → 다
 ⑤ ㄴ → (a, d) → 다

7 <보기>는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 쌀 소비 감소는 다른 식품의 소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다.
- ② [자료 1]을 활용해 쌀 소비 감소 현황을 소개하고, [자료 3]을 활용해 식생활 패턴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
- ③ [자료 1]과 [자료 4]를 활용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쌀 소비를 늘려 가야 함을 주장한다.
- ④ [자료 2]를 활용해 쌀 소비 감소로 영양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료 4]를 활용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⑤ [자료 3]과 [자료 4]를 활용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건강에 좋은 다기능 쌀을 개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 8 <보기>와 같이 '청소년 봉사 활동'에 대하여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방안이나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1. 청소년 봉사 활동의 의의

2. 청소년 봉사 활동의 실태 ㉠

II. 본론

1. 청소년 봉사 활동의 문제점

가. 입시에 목적을 둔 형식적인 활동 ㉡

나. 점수를 따기 위한 시간 때우기 식 활동 ㉢

2. 청소년 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

가. 봉사 활동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정신 교육 강화

나. 청소년 자원 봉사 센터 등과 연계 방안 모색

다.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보의 부족 ㉤

III. 결론

청소년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① ㉠ ② ㉡ ③ ㉢ ④ ㉣ ⑤ ㉤

㉠: 청소년들의 봉사 활동 시수나 활동 장소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II-1-가'와 내용상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청소년 봉사 활동 의무 시간 확대'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II-1'로 이동한다.

- 9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표어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홍보물에 담아야 할 내용]

- 책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
- 도서관에서 얻은 정보가 앞날을 위해 유용함.

[조건]

- 대구와 비유를 통해 표현 효과를 살림.

- ① 도서관에 책이 있고
책 속에 길이 있다
- ② 책 속에서 정보를 만나고
정보 속에서 미래를 만나자
- ③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즐기며
장밋빛 꿈을 설계하자
- ④ 책이 있어 즐거움이 솟아나는 공간
우리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 ⑤ 책은 즐거움을 주는 정다운 친구
도서관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혜의 요람

- 10 '진로 선택'에 대한 글의 초고를 다듬으려고 한다.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언론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 요인을 조사해 보았는데, ㉠ 예상되어진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능, 학력, 가정 환경' 대신 ㉡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데서 찾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 하지만 즐거움을 느낄 때, ㉣ 일의 능률과 창의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하지 못해서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 체면치레로 일을 하면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에 사용한 피동 표현이 어색하므로 '예상된' 또는 '예상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찾았습니다'의 목적어가 없어 어색하므로 '성공의 요인'을 삽입해야겠어.
- ③ ㉢은 앞뒤 문장의 연결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로 바꿔야겠어.
- ④ ㉣은 '능률'과 '창의성' 둘 다 '발휘될'의 주어가 되어 어색하므로 '일의 능률이 오르고, 창의성도 발휘될'로 고쳐야겠어.
- ⑤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체면치레'로 고쳐야겠어.

- 11 밑줄 친 말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우리말에서 용언은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미와 결합한다. 그런데 몇몇 동사의 경우 활용이 온전하지 못하여 일부 어미하고만 제한적으로 결합한다. 예를 들어 '데리다' 같은 말은 '데리고', '데려(데리+어)' 등으로는 활용하지만, '데리게', '데리면', '데리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 ① 그는 나에게 책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
- ② 출발에 즈음하여 친구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 ③ 그녀는 가끔씩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
- ④ 그는 흥분해서 극단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
- ⑤ 이웃과 더불어 살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 12 <보기>의 십자말 맞추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낱말로 알맞은 것은? [1점]

< 보 기 >

					단
			㉠		출
㉡					하
두	루	몽	술	하	게

- ㉠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남.
- ㉡ 어떤 범위나 한계, 물레의 줄.

- | | |
|-------|-----|
| ㉠ | ㉡ |
| ① 불세출 | 데두리 |
| ② 불세출 | 변두리 |
| ③ 팔불출 | 넋두리 |
| ④ 팔불출 | 데두리 |
| ⑤ 밀반출 | 변두리 |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며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맘내와 사랑내 ㉠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殿)하는 것일까?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나) 심지를 ㉢ 조금 내려야겠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만큼의 빛이 있는데
심지만 뽑아 올려 등잔불 더 밝히려 하다
그을음만 내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 잡간 더 태우며 빛을 낸들 무엇하랴.
욕심으로 타는 연기에 눈 제대로 뜰 수 없는데
결국은 심지만 못 쓰게 되고 마는데

들기름 콩기름 더 많이 넣지 않아서
방안 하나 겨우 비추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등잔이 이 정도 담으면
넉넉하기 때문이다.
넘치면 나를 태우고
소나무 등잔대 쓰러뜨리고
창호지와 문설주 불사르기 때문이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은은히 밝은
내 마음의 등잔이여,
분에 넘치지 않으면 범구경 한 권
㉤ 거뜰히 읽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빛이여.

- 도종환, 「등잔」 -

- (다) 잊음 많아 이 책 저 책 뽑아 놓고서
흩어진 걸 도로 다 정리하자니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강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막대 짚고 뜨락으로 내려가서
고개 들고 구름재를 바라다보니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동샷집 가을견이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도네.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칠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지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이 회포를 뉘에게 얘기할거나
거문고만 뚝뚝 탄다, 고요한 밤에.

- 이황, 「만보(晩步)」 -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삶에 대한 성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담겨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식민지 시대의 정신적 고통을 노래하던 윤동주는 1941년
릿교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하지만 군국주의 성향이 강한
학교의 분위기를 못 이겨 한 학기만에 도시샤 대학으로 편입
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 하던 윤동주는, 요시찰인
으로 주목을 받던 연희 전문학교 동창 송몽규와 함께 독립 운
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일경에 체포된다. 그는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짧은 삶을 마감한다.

- ①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는 시인이 유학 생활 중 느꼈던 답답
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배어 있다.
- ②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은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
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노래한 것이다.
- ③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는 공부를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국을 떠나 있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깔려 있다.
- ④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던 시인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조국의 광복을 말한다.
- ⑤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
소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형상화한 것이다.

15 (나)의 주제를 반영하여 시조를 창작해 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중장과 종장에 배열할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지나친 욕심은 많은 것을 잃게 하고

.....

.....

※ 조건 : 비유의 기법을 사용하되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도록 할 것

[중장] ㉠ 재물과 명예는 뜬구름만 잡게 하네.
 ㉡ 자축하는 마음은 소박한 열매 맺네.
 ㉢ 베푸는 마음은 더없이 아름답네.

[종장] ㉣ 이제는 이 마음 지켜 넉넉히 살겠노라.
 ㉤ 오히려 사람 한 평생 이렇게 흘러간다.
 ㉥ 언제나 이웃을 위해 사랑의 꽃 피우리.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6 (다)의 시상 전개와 특징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음과 끝이 상응하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③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⑤ 영탄과 회상의 어조를 교차해 가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에 담긴 시인의 의도를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② ㉡: 창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나태함을 표현했다.
 ③ ㉢: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④ ㉣: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부각했다.
 ⑤ ㉥: 욕심을 낮추어 이룰 수 있는 경지에서 오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이버 언론의 등장으로 기존 거대 언론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거대 언론은 일방적이고 권력 집중적이었다. 이에 반해 사이버 언론은 수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기에 사이버 언론에서는 여러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언론은 거대 언론이 외면하는, 작지만 알찬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가 하면 공론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기존의 거대 언론들은 인터넷이 열어 준 이러한 지각 변동에 당황하여 앞 다투어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그 홈페이지에는 종이 신문에 실린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거대 언론이 지녔던 이전의 위상을 유지해 주는 ㉠ 버텨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언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은 '사이드워크'에 의해 시작된 '맞춤 신문'과 '포인트캐스트'에 의해 시작된 ㉡ '신문의 신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社)가 만들었던 '사이드워크'는 지역 생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정 지역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맞춤 정보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독자의 정보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해당 도시의 문화 행사와 식당·공연·교통 상황 등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능력과 양방향 통신의 장점을 한데 묶어 수요를 창출해낸 사례이다. 또 '포인트캐스트'는 기존의 여러 거대 언론 매체를 하나의 웹 사이트에 모은 후 독자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부문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종이 신문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데 그치지 않고 방송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합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언론 양식을 개척한 것이다.

'사이드워크'와 '포인트캐스트'에 쓰였던 기술은 더욱 더 발전하여 현재 사이버 언론의 기반이 되었다. 사이버 언론은 인터넷의 양방향 통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이전에는 뉴스의 소비자 역할에만 머물렀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라도 뉴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상호 작용의 연로(言路)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언론의 흐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이버 언론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매체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으로 네티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거인들의 독점과 독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난쟁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거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이버 언론의 강자로 또 무엇이 부상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다.

* 포인트캐스트 : 1)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포인트캐스트 사(社)가 만들었던 홈페이지
 2)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최초의 시스템

1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 ② 통념이 지닌 오류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④ 논의 대상의 구성 요소를 기능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사례를 들어가며 논의 대상의 발전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19 위 글을 참조할 때, 사이버 언론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1점]

- ① 사이버 언론에서는 뉴스의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어.
- ② 사이버 언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야.
- ③ 사이버 언론은 거대 언론이 사용했던 뉴스 생산 방식을 따르게 될 거야.
- ④ 사이버 언론은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
- ⑤ 사이버 언론에서는 편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뭉쳐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을 거야.

20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구조가 일치하는 말은?

【버팀목】

- 뜻 :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버티어 세우는 나무
- 구조 : 역할 + (그 역할을 하는) 사물

- ① 간장독 ② 디딤돌 ③ 다림질
- ④ 국화차 ⑤ 잔칫상

21 ㉡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은?

- ① 신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 ② 신문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신문
- ③ 지역의 생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신문
- ④ 언론사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특별 제작한 신문
- ⑤ 각종 언론의 기사를 통합하여 분류해 놓은 신문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함경도 정흥에 사는 김 좌수는 길몽을 꾸 뒤 옥랑을 얻는다. 옥랑은 명망이 높은 이시업과 혼약한다. 시업은 혼례 행차 중 영흥 토호 일행과 실랑이 끝에 사람을 죽인 하인 때문에 투옥된다. 이에 옥랑은 시업의 얼굴이나 한번 보겠다며 부모의 허락을 얻어 그를 찾아간다.

옥랑이 이옥하여 다시 들어오더니, 시업을 대하여 앉으며 오열하여 왈,

“첩은 김 좌수의 딸 옥랑이라. 신수가 기박하여 낭군께서 누구도 뵈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시니 천지 아득하오나 누구를 원망하리오. 첩이 비록 배운 바 없사오나 옛날 절개를 지닌 아녀자의 행실을 틈사오니, 군자를 대신하여 의리에 온전히 하운 자가 많사온지라.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첩의 의복을 입으시고 나아가시면 첩은 군자를 대신하여 죽사오도 유한이 없사올지라. 다만 한 가지 었드려 바라옵건대 첩의 죽음으로 꺼리지 말으시고 때때로 왕래하시어 저의 늙은 부모의 심회를 위로하여 주소서. 잠시도 머물지 말으시고 속히 나아가소서.”

시업은 그제야 비로소 김 좌수 딸이 분명함을 알고 칼머리를 들고 앞으로 당겨 앉으며 낭자의 손을 잡고 길이 탄식하여 이르

는 말이,
“규중의 연약하신 낭자가 소생의 죄로 말미암아 천신만고를 겪으시고 험한 곳에 들어와 외로운 심회를 위로하시니 진실로 생사 간에 잊히기 어렵도소이다. 그러하오나 사람에 대하여 귀중하온 마음이 남녀의 구별이 없삽거늘 어찌 소생의 죄에 낭자가 대신 죽으려 하시뇨? 이는 만만 불가하오니 그러하온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소서. 만일 타인이 기미를 아오면 재앙이 적지 아니할 것이외다. 소생은 이미 스스로 지은 허물이오라 죽어도 한할 바 없거니와 낭자는 무슨 연고로 따라서 대환(大患)을 당하시리요?”

하니, 낭자는 이 말을 듣고 정색하며 하는 말이,
[A] “군자의 말씀은 가장 의리에 적당치 못하나이다. 옛글에 읽었으되,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첩이 군자를 따라 죽는다 할지라도 또한 불가함이 없겠거늘 하물며 군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는 만고에 몇몇한 의리이며 당연히 군자께서 용납하실 바이거늘 들어 주시지 아니하니, 이는 필시 군자께서 천첩을 불초한 사람으로 보시와 능히 의를 이행치 못하리라 여기심이외다. 첩의 일편단심이 허사로 돌아감이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오리까? 일이 이미 이 지경에 다다랐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을 대하리요? 차라리 이곳에서 자결하여 그로써 첩의 진정을 표하겠나이다.”

③ 갑작 놀란 시업이 급히 칼을 빼앗으며 위로하여 타이르되, “낭자의 말씀이 지당하오나 내 어찌 내 죄로 낭자더러 차마 대신 죽으라 할 수 있으리요? 소생의 심회가 매우 어지러워 한마디로 결단키 어려우매 낭자는 잠시 진정하소서.”

하고, 낭자는 다시 재촉하기를, “옥줄들이 만약 술을 깨오면 두 사람이 한가지로 목숨을 보존치 못하올진대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보전하움이 낫지 않겠나 이까?”

하며 재삼 재촉하는지라.

(중략)

⑮ 이에 이르러 남자는 눈빛을 고치며 다시 바삐 나아가기를 재촉하는지라. 시업은 할 수 없이 남자가 입고 들어온 옷을 바꿔 입고 자기 목에 씌웠던 칼을 남자에게 씌우니 남자의 언사는 비록 남자에 못지않으나 종시 여자의 몸이라 기질이 약하여 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더라. 시업이 그 거동을 보매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라 차마 발길을 돌이키지 못하며 서성거리고 남자 또한 비참함을 겨우 억제하나 ㉠ 목이 메어 차마 말을 못하니 이 어찌 슬프다 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옥졸들 깨달으면 화를 벗어나지 못하겠기로 남자는 이를 악물며 시업을 밀쳐 나가게 하니 그 형상은 초목 금수일지라도 감동하겠더라.

시업이 할 수 없이 몰아서 나오니 여느 때나 다름없이 옥졸이 지켜 있으나 처음에 남자가 들어올 때 있던 옥졸이 아닌고로 아무리 시업의 얼굴이 남자와는 다르고 눈물 흔적이 있으나 동문수 학하던 사이에 생리사별을 당하니 피차에 슬퍼함이 있음직한 일 이므로 의심치 아니하고 내보내니 ㉡ 시업이 남자의 말소리로 옥 졸을 향하여 무수히 치사하고 나가더라. 시업이 한 걸음에 두 번 씩 엎드러질 지경이나 타인이 알까 염려하여 슬픔을 억누르고 호 것한 산길을 더듬어 돌아올새,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 땅바닥 에 주저앉더니 목이 메도록 슬피 통곡하여 멈출 바를 모르더라.

이때 남자의 종인이 집에 돌아가 좌수께 보이니 이에 좌수가 묻기를,

“아가씨는 어디 가고 네 홀로 돌아오느냐?”

종인이 대답하기를,

“아가씨는 이러저러하여 옥졸을 달래어 옥중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일이나 돌아오신다 하시더이다.”

하기에, 좌수가 심중에 의아하여 그 날 밤을 겨우 지내고 딸아 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더라.

㉢ 지리한 하룻밤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다시 지나도록 옥랑의 자취가 없는지라. 모두들 마음에 의혹이 생기어 온 집안이 뒤숭 숭하는 중에 부인이 조급한 마음으로 남자의 침방에 들어가 서 안(書案)을 살펴보니 ㉣ 편지 한 통이 놓여 있기에 피이하게 여 겨 들어 보니 결봉에 쓰기를 ‘불효녀 옥랑’이라 하였더라.

[뒷부분의 줄거리] 영흥 부사는 시업이 옥을 빠져 나간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한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듣고는 가혹한 일이라며 임금께 보고하였고, 이에 임금도 천하의 절행이라 칭찬하면서 시업의 죄를 용서하고 옥랑을 정렬부인으로 봉한다. 옥랑은 시업과 평생을 해로한다.

— 작자 미상, 「옥낭자전」 —

2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전 소설의 대표적 특징

- 주제 : ‘권선징악(勸善懲惡)’을 형상화함
- 구성 : •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을 취함
 - 행복한 결말을 보임
- 인물 : 주로 평면적 인물이 등장하여 선악의 대결 구도를 펼침
- 사건 : 도술, 슬법 등의 전기적(傳奇的)인 사건이 자주 일어남

- ① 시업에 대해 희생적인 옥랑의 선량함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주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 ② 옥랑의 탄생부터 시업과의 해로까지를 사건화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옥랑과 시업의 삶이 행복한 결말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구성상 특징이 잘 나타나는군.
- ④ 시업과 부사 간의 선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 ⑤ 특별히 전기적(傳奇的)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사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23 [A]에 나타난 인물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업은 자신의 죄과를 옥랑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만류하고 있다.
- ② 시업은 옥랑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③ 옥랑은 시업의 만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 ④ 옥랑은 윤리적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옥랑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24 ㉠을 주리하여 다음과 같이 써 보았다고 할 때,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소녀는 부모님 두 분 앞에 아뢰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며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 그 도리 중에 부부간의 의리는 매우 소중한 것이옵니다. 이에 한번 부부가 되기로 한 남궁과의 의리를 지키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더구나 ㉡ 남궁은 저와의 혼사를 위해 오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였으니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사옵습니다. 또한 남궁의 죄로 인해 ㉢ 장차 우리 가문에 미칠 수도 있는 화(禍)를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가고자 하니 이 불효녀를 생각지 마옵소서. ㉣ 저는 남궁을 대신하여 목살이를 하려고 하옵니다. ㉤ 부모님께서도 곧 돌아오리라 생각하셨을 텐데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사옵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 여식을 용서하시고 다시 죄을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옵소서.

불효녀 옥랑 올림

25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소설에서는 작품 밖에 있는 작가(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뛰어들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논평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류학은 인류 문화의 기원이나 특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 인류학적 역사학(Anthropological History)이다. 이것은 역사학에서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 체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에서 비롯된 학문으로, 역사학과 인류학의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학적 역사학은 다른 역사 서술과 어떻게 다른가? 「고양이 대학살」을 쓴 로버트 단턴의 연구를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1730년대 프랑스 파리의 생세브랭 가에 위치한 한 인쇄소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견습공들이 고양이를 마구 잡아서 죽이고 축하 파티를 벌인 것이다. 그 당시 인쇄업자들은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많이 키웠는데, ㉡ 문제의 인쇄소 여주인은 견습공들의 생활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 고양이는 호사스럽게 키웠다. 인쇄소 견습공들은 이런 점에 불만을 품고 여주인이 아끼던 고양이들을 없애자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먼저 한 견습공이 밤마다 고양이 소리를 흉내 내어 여주인의 수면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참다못한 여주인이 도둑고양이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자, 견습공들은 도둑고양이들과 함께 여주인이 아끼던 고양이까지 죽이며 환희와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 들었다. 그 뒤 그들은 모여서 놀 때 고양이 학살 소동을 연극으로 재현하며 즐거워했다.

기존의 역사학자들이라면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다. 그러나 인류학적 역사학에서는 이 사건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거나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알아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단턴은 당시 인쇄공이었던 니콜라스 콩다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고양이 대학살 사건’을 역사의 범주로 끌어들었던 것이다.

단턴은 이 소동을 통해 당시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일상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이 왜 고양이를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을 그리도 재미있어 했는가 하는 점을 주목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마법 혹은 마녀를 의미했다고 하니, 인쇄소의 여주인을 은근히 마녀에 빗대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양이를 잡아 죽임으로써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자신들의 쌓였던 울분을 발산하여 노동 현장의 활력소로 삼았다고 보았다.

단턴은, 역사학자가 과거를 연구할 때에는 인류학자가 낯선 문화를 살펴보듯이 기록물을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역사가 다루지 않았던 대중들의 사소한 기록까지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사고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기록된 문서의 시대적 맥락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이처럼 대상이 되는 자료와 그 자료의 앞뒤 맥락을 오가면서 나타나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는 것이 새로운 인류학적 역사 연구 방법인 것이다.

2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류학과 역사학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학의 학문적 토대를 형성한다.
- ②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한다.
- ③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학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
- ④ 역사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인류학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 ⑤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인류학의 기존 성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27 ㉠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전라도 부안에 살았던 한 사대부 집안에서는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딸 모두에게 재산을 분배했으며, 제사도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며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딸은 시집을 가서도 친정의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지냈다.

부안 김씨의 분재기*에도 부모의 유산을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분재기(分財記):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나누어 준 기록

- ① 조선 시대 한 집안의 상속 양상을 통해 우리 나라 상속 제도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겠군.
- ② 조선 중기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출할 수 있겠군.
- ③ 한 집안의 일상적 기록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던 당시 민중의 궁핍한 삶을 암시해 주는군.
- ④ 조선 중기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통해 당시의 사대부들이 누렸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겠군.
- ⑤ 사대부 집안의 일상적 기록을 통해 조선을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보았던 기존의 역사적 인식과는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겠군.

28 ㉡의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 발 막대 거칠 것이 없다더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편이군.
- ② 내 배 부르면 중놈 배고픈 것 모른다더니 정말 너무하는군.
- ③ 고양이 쥐 생각 한다더니 걸으려면 위해 주는 척하는군.
- ④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더니 무모하기가 짝이 없군.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더니 욕심이 끝이 없군.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목판, 나무 활자, 금속 활자 등을 이용한 인쇄술을 발전시켰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금속 활자 인쇄술이다. 예부터 동(銅)으로 범종, 불상, 엽전 등을 만드는 등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는데, 이를 토대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깨끗한 종이를 만드는 기술, 활자를 책판(활자판)에 붙여 고정시키는 기술, 쇠붙이에 잘 묻는 먹물 등이 개발되면서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달은 기존의 목판 인쇄술이 지닌 여러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목판 인쇄는 책판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한 종(種)의 책밖에 펴낼 수 없었다. 더욱이 나무로 된 책판은 보관이 어려워 잘못하면 못쓰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반면 금속 활자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에 비해 활자를 만들고 책판에 배열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활자나 책판의 제작에 드는 재료, 수공,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절약되었다. 금속 활자는 한 벌의 활자를 만들면 오래 간직하면서 필요한 서적을 수시로 찍어낼 수 있었다.

고려조부터 조선조 말기 사이에 나온 여러 금속 활자본을 조사해 보면, 제작 주체 및 시대에 따라 활자를 만드는 방법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사찰에서는 고려 때부터 밀랍*을 이용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밀랍 한쪽 면에 글자를 새긴 후, 반죽한 흙으로 이것을 덮어 써서 주형(鑄型)을 만들어 굽는다. 이때 밀랍이 녹아 없어지면서 주형 안에는 활자 모양의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 쇠물을 부어 식힌 다음에 주형을 깨고 활자를 꺼내어 줄로 깎고 다듬으면 활자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밀랍의 재질 때문에 같은 글자라도 똑같은 모양의 활자를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고려 때인 1377년에 발간되어 현존하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도 이러한 사찰 재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조의 활자 인쇄는 조선조로 계승되어 중앙 관서에서 활자가 제작됨에 따라 자못 팔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소개된 활자 주조 방법을 보면, 먼저 글자본에 따라 필요한 글자들을 나무판에 도드라지게 새긴다. 그리고 한 글자씩 일정하게 잘라 내어 네 면을 잘 다듬고 정밀하게 손질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미자**는 활자를 주물로 뜰 때 모형(母型)의 역할을 한다. 갓벌의 흙을 다져 놓은 거꾸집(아래쪽)에 이 어미자를 박은 다음, 가지쇠를 박는다. 가지쇠는 글자 자국으로 쇠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그 다음 뚜껑을 덮듯이 거꾸집(위쪽)을 덮고 흙을 다져 넣는다. 그런 후 위 아래 거꾸집을 분리시켜 어미자와 가지쇠를 빼내고, 두 거꾸집을 다시 합쳐 고정시킨 다음 구멍으로 녹인 쇠물을 붓는다. 마지막으로 쇠물이 식어서 굳으면 활자가 붙어 있는 쇠를 꺼내고 활자들을 떼어내 다듬는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일정한 어미자를 정교하게 새겨서 만듦으로써 똑같은 모양의 활자들을 필요한 수만큼 제작했다. 하루 평균 3,400 ~ 3,500자를 만들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 하루 350 ~ 400자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 준다. 또한 고려인들의 금속 활자 인쇄가 서양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것도 우리 민족이 가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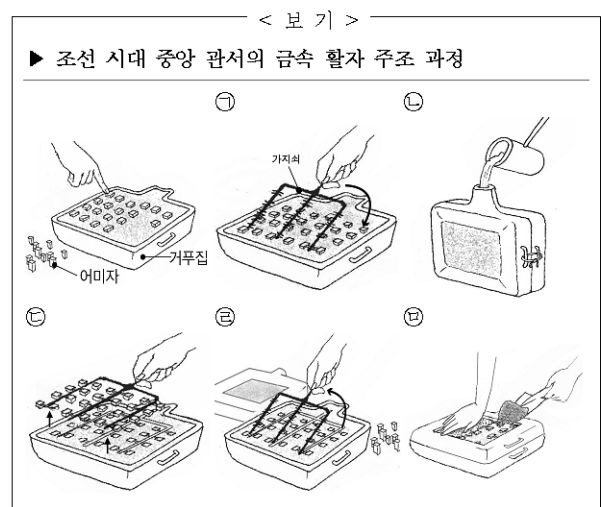
* 밀랍 : 꿀벌의 집을 만드는 주성분. 양초의 재료

** 어미자 : 쇠물을 거꾸집에 부어 활자를 만들 때 활자의 모형(母型)이 되는 글자

29 위 글에 제시된 금속 활자의 특징을 잘못 정리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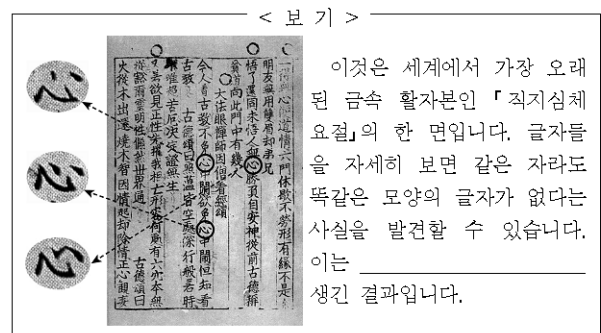
구 분	목판과 비교한 '금속 활자'의 특징
① 제작 공정	복잡하다
② 제작 비용	적게 든다
③ 제작 시간	오래 걸린다
④ 보존 기간	길다
⑤ 효율 성	여러 종의 책을 인쇄할 수 있다

30 ㉠ ~ ㉥의 과정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31 위 글을 토대로 <보기>와 같이 설명하고자 할 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밀랍의 특성으로 인하여 똑같은 주형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② 밀랍을 흙으로 덮어 쓰는 과정에서 글자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③ 밀랍의 한 쪽 면에만 글자를 새겨 활자를 제작했기 때문에
 ④ 활자의 제작 공정이 대량 생산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⑤ 활자를 책판에 배열해 검사하는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사진작가인 ‘나’는 어느 날 고궁을 찾아 사진 찍기에 몰두하다가 몇 시간째 웅크리고 앉아 있는, 치매에 걸려 버려진 한 노인을 발견한다. ‘나’는 공원 관리소로 노인을 데리고 가서 보호자를 찾아 주고자 하지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은 웃었다. 영원히 웃고 있는 팔을 쓴 광대처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인은 웃으며 자신의 나뭇등걸 같은 딱딱한 손을 내밀었다.

“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그 손에 내 손을 내어 밀자 노인은 고맙기라도 한 듯이 내 손을 마주 잡았다.

“배가 고픈다, 밥 좀 주십시오.”

관리인은 묵묵히 나와 노인이 별이는 기묘한 대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 보기엔 덕한테 그새 정이 든 모양입니다.”

관리인은 웃지 않았다.

나는 벌레를 피하기라도 하는 듯이 노인의 손에 잡힌 손을 빼려고 힘을 주었다. 순간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이 자식아.

나는 나 자신에게 엄중히 꾸중했다.

최소한 노인에게 저녁 한 끼라도 베풀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나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잖은가. 이건 귀찮은 일이다. 풍연한 샌티멘털리즘에 스스로 빠져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돌아섰다.

“이 노인네를 내가 데려가겠소.”

“예?”

관리인은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지 얼핏 실감이 오지 않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이 노인네를 내가 데려가겠소. 저녁 한 끼 대접하겠소. 그래도 괜찮지요?”

“글쎄요.”

사내는 시선을 피했다.

(중략)

그렇다.

나는 노인을 아무 곳이나 버리면 그만이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아니다. 그 생각은 어제부터 문득문득 자주 들곤 했었다. 하지만 그 강렬한 악마의 유혹을 애써 모른 채 덮어 두고 지워 버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 노인을 버릴 최선의 기회이다. 몸도 마음도 죄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노인은 버려져 있었지 아니한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마지막 목욕, 마지막 산책길에 나서서 마침내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나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

[A] 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나는 밥을 먹었으며 목욕을 시켰으며 재웠으며 술까지 먹였다. 나는 표창

받는 모범 선행 아동처럼 행동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취할 행동은 분명해진다. 나도 그 노인에게 그 누군가의 사람이 베풀어 주었던 대로 고려장을 베풀어 주면 그만이다.

나는 자칫 시간을 끌면 변해질지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노려보며 몸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밥을 차려 먹일 것인가. 안 돼.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밥 먹는 탐욕스럽고 추한 노인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 어찌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면 안 된다. 그보다도 경희가 일찍 돌아온다면 어쩔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 대고 일제감치 돌아올지도 모른다.

(중략)

버린 노인을 또다시 찾으러 가는 이 기묘한 토막극은 도대체 어찌하는 것이냐. 버린 노인을 되찾아 겨안고 나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엎드려 빌어야 한단 말이나.

“어디예요?”

성당 입구에 서서 경희는 나를 노려보았다.

“저쪽이야.”

나는 손가락으로 성당 위쪽을 가리켰다.

“성당 앞 벤치예요?”

“그래.”

“됐어요, 여기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차갑게 경희는 나를 막아 세웠다.

“나 혼자 올라가겠어요.”

나는 홀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꼭 비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 오한이 뿔뿔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 깊은 거리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차가운 불빛만 깜박이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떨고 또 떨었다. 그러나 경희는 내려오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자격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급하게 마신 술이 머리를 뒤죽박죽 혼란시키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참회하는 마음은 일지 않았다. 죄의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은 그저 담담했다. 왜 안 올라.

그제서야 헤어질 무렵 내게 손을 내밀던 노인의 그 천진한 웃음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물의 침묵으로 내밀던 노인의 딱딱하게 굳은 그 손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노라는 의미의 손짓이 아니었을까.

나는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갔다. 벤치에 경희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갔어요.”

경희는 흐느끼며 내게 외쳤다.

“없어요, 할아버지는 가버린 거예요.”

비 맞은 경희의 머리칼이 함부로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우린 죄를 지었어요, 우린 나쁜 사람들이예요.”

- 최인호, 「물의 초상(肖像)」 -

32 '노인'을 바라보는 '나'의 심리와 태도 변화를 순차적으로 정리할 때, 적절한 것은?

	(중략)	(중략)
①	촉은히 여겨 손 잡아주기	→ 냉정히 마음먹고 손 떼기 → 작잡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기
②	촉은히 여겨 손 잡아주기	→ 무덤덤하게 바라보기 → 마지못해 찾아 나서기
③	불쌍히 여겨 바라보기	→ 뉘우치며 다시 찾아보기 → 마지못해 찾아 나서기
④	살살맞게 대우하기	→ 냉정히 마음먹고 손 떼기 → 뉘우치며 다시 찾아보기
⑤	살살맞게 대우하기	→ 무덤덤하게 바라보기 → 작잡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기

3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여러 등장 인물의 행동을 번갈아가며 서술하고 있다.
- ② 등장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심경을 독백조로 진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다른 등장 인물의 잠재된 내면 세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등장 인물 중 한 사람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 ⑤ 등장 인물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알고 있는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고 있다.

3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다.
- ② ㉡은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 ③ ㉢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결심한 상황이다.
- ④ ㉠에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했지만, ㉡에서는 개인 주의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는 ㉡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35 다음은 위 글을 제시문으로 한 논술 고사 문제이다. 주어진 '논제'에 따라 답안 작성을 위해 구상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논제]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이나 현상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원인과 해결 방향을 제시한 다음,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구분	구상 내용
문제의 현황	공원에 버려지는 '노인'의 모습에서 현대 사회가 당면한 노인 소외 현상을 지적한다. ①
문제의 원인1	자식들이 병든 '노인'을 버리는 행위에서 인류를 저버리는 도덕 불감증을 원인으로 든다. ②
문제의 원인2	인간을 버려도 되는 하나의 사물처럼 가벼이 취급하는 세태를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든다. ③
해결 방향	침묵하며 웃음 짓던 '노인'과 노인을 찾지 못하고 흐느끼는 '경희'의 행동을 통해 젊은 세대에 대한 노인 세대의 용서가 문제 해결의 근본 방향임을 밝힌다. ④
견해	자식의 입장이든 제3자의 입장이든 인간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보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역설한다. 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의미라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설명하는 방향이 다르다. 의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지시설(指示說)과 개념설(概念說)이 있다.

먼저 지시설은 말소리가 지시하는 대상이 바로 언어의 의미라는 견해이다. 예컨대 ‘나무’라는 단어의 경우 [나무]라는 말소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무’의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깨비, 용, 견우, 직녀’처럼 지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은/는, 에, 에게’처럼 문법적 기능만 가진 말들도 있으며, ‘사랑, 평화, 추리’처럼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시설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는 지시 대상 대신에 ‘개념’을 의미로 보는 ㉠ 개념설이다. 우리는 실재하는 수많은 나무들의 공통점을 뽑아 머릿속에 나무라는 심리적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심리적 영상을 흔히 ‘개념’이라고 부른다. 그 개념이 바로 ‘의미’이고, 이를 말소리로 표현한 것이 ‘기호’이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체가 지시물이고, 그것들로부터 직접 공통점을 뽑아내 추상화한 개념이 곧 의미이며, 이를 나타내는 말소리(=기호)가 [나무]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무]라는 말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곧바로 지시물인 나무의 실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개념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개념이며, 지시물은 머릿속의 개념을 통하여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미의 유형에는 먼저 개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다. 개념적 의미는 어떤 단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것은 문맥적 쓰임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흔히 사전적 의미라고도 한다. 한편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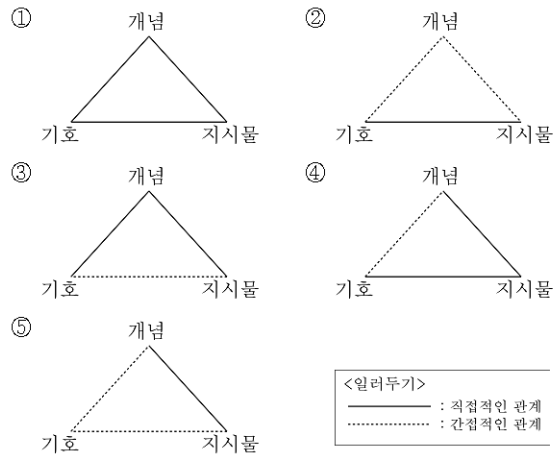
의미의 유형에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 및 반사적 의미도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들을 전달할 때 이를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선택한 단어의 종류나 말투, 그리고 글의 문체 등에 의해서 전달된다. 또 말을 할 때 심리적 상태나 상대에 대한 공손함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어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의미를 정서적 의미라고 한다. 똑같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더라도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어조 등이 달라지는데, 대개의 경우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주는 느낌, 즉 정서적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한편 ㉡ 반사적 의미는 ‘아빠’와 ‘부친’처럼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물 이상의 표현에서 어감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문어진’이라는 사람 이름처럼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너진]으로 발음되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언어의 중심적 기능이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므로 의미의 개념과 유형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우리는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의미에 맞게 ㉢ 가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6 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에는 구체적 지시 대상이 없는 말도 있다.
- ② 언어의 의미는 유동적이므로 시간에 따라 변한다.
- ③ 어조를 통해 심리적 태도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개념은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다.
- ⑤ 단어의 의미는 문맥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다.

37 ㉠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삽입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8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여성’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끔찍하다, 자상하다’ 등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 ㉡ 예전에 ‘천연두’는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손님, 마마’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했다.
 - ㉢ ‘잘 한다!’는 말은 억양에 따라 칭찬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비꼬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 ㉣ ‘배신자(裨信子)’라는 이름은 그 발음 때문에 원래 뜻과는 관계없이 남들의 놀림감이 될 수 있다.

- ① a, b ② a, c ③ b, c
- ④ b, d ⑤ c, d

3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를 볼 수가 없었다.
- ② 그녀는 불량품을 가려서 버리는 일을 했다.
- ③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한다.
- ④ 아버지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
- ⑤ 유난히 낮을 가리는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어떤 공간에 조각이 놓이면 그 조각의 외형만을 작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각이 특정 공간에 놓이면 그 주위 공간 모두가 조각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왼쪽 작품



헨리 무어 「기대 누운 인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인 부분이나 뚫려 있는 부분, 그리고 형상 사이사이의 공간까지도 단순히 '빈 곳'이 아니라 ㉠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불러 작품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킨다. 물질과 공간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공간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간 창조 행위로서의 조각의 특질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토르소(torso), 즉 팔다리나 머리 따위가 절단된 인체 형상이다. 그런데 토르소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조각의 한 분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연극이나 의식에 사용하는 마스크 이외에 두상(頭像)이나 흉상(胸像)이 제작되기도 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떠 보관하던 관습이 조각으로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대의 조각에서 사람의 형상은 대부분 전신상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당시 인물 조각의 원칙이었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미술가들이 파손된 채 발굴된 고대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미켈란젤로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는 「벨베데레의 토르소」는 근대 조각가들이 파손된 고대의 작품에서 얼마나 신선한 아름다움을 느꼈을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많은 부분이 파손된 상태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강렬한 힘과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와 같이 미완성의 미학을 발견한 이후 서양의 근대 조각가들은 의도적으로 머리카나 팔다리를 제거한 토르소를 조각의 한 장르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조각 작품이 주는 공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빈 공간까지 조형의 한 요소로 여김으로써 예술적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다.

기원전 200년경에 제작된 「밀로의 비너스」는 양팔이 ㉡ 소실(消失)된 상태인데, 만약 양팔이 온전히 붙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만큼 강렬한 감동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조각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밀로의 비너스」는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까닭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르소는 단순히 몸통 자체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동세(動勢)*의 단순화를 통해 인체의 볼륨과 선이 주위 공간과 어떤 조화를 자아내는지, 혹은 신체의 일부분이 생략된 데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인해 어떤 예술적 효과와 감동이 형성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보는 사람의 미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토르소는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고도로 강조된 조각이라 할 수 있다.

* 동세(動勢): 조각이나 회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운동감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시대의 조각에서 인체 형상은 대부분 전신상이었다.
- ② 미켈란젤로는 「벨베데레의 토르소」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 ③ 토르소가 조각의 한 장르로 인정받은 것은 근대 이후이다.
- ④ 「밀로의 비너스」는 토르소의 형태로 제작된 최초의 작품이다.
- ⑤ 토르소는 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고도로 강조된 조각이다.

41. 위 글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로댕, 「걷는 남자」

- ① 신체의 일부분을 생략하여 동세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인체 구조의 비례에서 오는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군.
- ②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 기괴하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것이 주는 긴장감이 오히려 색다른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 ③ 생략된 신체의 일부분이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에게 작품 감상의 묘미를 더해 줄 수 있겠군.
- ④ 신체의 일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은 걸을 때 나타나는 근육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
- ⑤ 신체의 일부분을 생략함으로써 미완성의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신상과 차별화된 예술성을 갖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

4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조형의 대상이다.
- ② 공간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강조한 개념이다.
- ③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작가의 의도에 의해 형성되는 조각의 구성 요소이다.
- ⑤ 작품의 공간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장치이다.

43 ㉑의 사전적 의미와 그 적절한 용례를 <보기1>과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1 > —
ㄱ. 잃어버리거나 모자람이 생겨 손해를 봄
ㄴ. 사라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잃어버림

— < 보 기 2 > —
a.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가 ○○되었다.
b. 그 집은 단열재를 쓰지 않아 연료의 ○○이 많다.
c. 그가 애써 가꾼 포도밭이 이번 홍수로 ○○되었다.

- ① ㄱ - a ② ㄱ - b ③ ㄱ - c
④ ㄴ - a ⑤ ㄴ - b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망루 아래에서 마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리의 습격을 막기 위한 임무를 배우던 소년 파수꾼 '다'는 어느 날 망루에 올라가게 되고 울타리 너머에는 이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촌장 :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된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멧물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㉑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지 울타리를 물렸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러구 함께 외치세요.

촌장 : 그래, 외치마.

다 : 아, 이젠 됐어요!

촌장 :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㉒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 뭘 망설이지요?

촌장 :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구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구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㉓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에요, 그건!

촌장 :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단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㉔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피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가 들어온다.

나 :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 ㉕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다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촌장 :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중략)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물어 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 애야, 괜찮겠니?

다 : 네.

나 :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앉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나.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가 몰려온다!

— 이강백, 「파수꾼」 —

44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에 대한 진실을 숨겼다.
- ② 파수꾼 ‘나’는 촌장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이다.
- ③ 파수꾼 ‘다’는 파수꾼이라는 신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④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망루로 왔다.
- ⑤ 식량 운반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기 전부터 파수꾼 ‘다’를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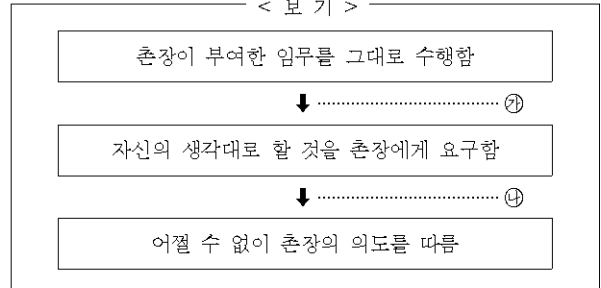
45 <보기>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선생님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철학자 벤담이 말한 바 있는 ‘파놉티콘’을 떠올렸어요. 파놉티콘은 바깥쪽에 높고 긴 담이 둘러쳐진 원형(圓形)의 감옥이에요. 감옥 중앙의 이층으로 되어 있는 감시용 탑에서는 수감자들을 감시할 수 있지만, 수감자들은 감시자의 행동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감자들은 완벽하게 격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작품과 파놉티콘을 연관 짓는다면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마을 사람들’과 ‘수감자들’은 ‘촌장’과 ‘감시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② ‘파수꾼’과 ‘감시자’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 ③ ‘마을’과 ‘감옥’ 모두 권력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 ④ ‘망루’와 ‘감시용 탑’ 모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장치라는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⑤ ‘울타리’와 달리 감옥의 ‘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넘나들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6 <보기>는 위 글에 나타난 파수꾼 ‘다’의 태도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변화의 계기로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묶은 것은?



	㉠	㉡
①	흰 구름을 보고 속은 것을 깨달음	촌장이 약속한 말을 믿음
②	황야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함	마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함
③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낌	촌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함
④	이리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남	촌장에 대해 공포를 느낌
⑤	늙은 파수꾼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낌	끔찍한 상상에 두려움을 느낌

47. ㉠~㉡에 담겨 있는 촌장의 발화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의하는 듯한 말로 파수꾼 ‘다’를 방심하게 한다.
- ② ㉠: 자신의 속마음을 던지시 파수꾼 ‘다’에게 알린다.
- ③ ㉠: 파수꾼 ‘다’의 감정을 자극하여 동정심을 유발한다.
- ④ ㉡: 파수꾼 ‘다’에게서 자신이 기대한 반응을 유도한다.
- ⑤ ㉡: 이리가 곧 잡힐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거미들은 집을 짓는다. 그 모양 또한 언제나 비슷하다. 정원이나 집안의 후미진 곳에 쳐 있는 거미집은 먹이를 얻기 위한 탐색 활동의 흔적이다. 대부분의 거미들은 일생 동안 한 개체 당 약 2백 개 정도의 거미집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거미의 집짓기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뉜다. 제일 먼저 거미는 거미줄 칠 자리를 탐색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 집을 짓기로 결정하면, 두 군데의 높은 지점을 줄로 연결하고 그 가운데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Y자 모양의 구조를 만든다. Y자의 접합점은 거미줄의 중심이 되고 두 팔과 줄기는 최초의 '바퀴살'이 된다. 그 다음, 거미는 거미집의 중심 지점을 돌면서 중심을 튼튼히 만들고 견고한 집을 위해 바퀴살도 여러 개 더 만든다. 집의 기본 골격을 만든 거미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네 바퀴에서 여덟 바퀴 정도 돌면서 추가로 나선형의 줄을 침으로써 일단 '임시 나선형 거미줄'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완성된 거미줄은 거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끈적거리지 않는 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거미집 건설의 마지막 단계로, 먹이들이 걸려들면 달아나지 못하게 끈끈이가 묻은 실을 이용하여 거미집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촘촘하게 만든다. 이렇게 '포획 나선형 거미줄'을 완성한 후 거미는 거미집의 중심을 조절해 전체 거미줄의 장력(張力)을 조율하고 먹이가 걸리기만을 기다린다. '포획 나선형 거미줄'은 항상 폭보다 길이가 길고, 중심은 가운데가 아닌 약간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중력으로 인해 거미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거미집의 아래쪽에 먹이가 많이 걸리도록 거미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많은 거미집을 관찰한 결과 거미줄의 이런 비대칭성은 철저히 계획적인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거미의 생태에 주목한 덴마크의 아로아 대학 생물학과 볼라스(Vollarth) 교수의 '사이버 거미' 연구는 우리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이버 거미는 컴퓨터 화면 상에서 움직이는 거미로서 사이버 유전자(그물눈 크기 조절 인자, 실의 각도 조절 인자 등)까지 가진 개체이다. 자연 관찰을 토대로 이끌어낸 거미의 행동 특성에 관한 기본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사이버 거미는 치밀한 수학적 계산에 따라 자신의 집을 지어 나간다. 여기에 중력, 몸속에 남아 있는 실의 양 등에 대해 판단하고 그 요인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거미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 자연 생태의 거미와 거의 흡사하다. 한 실험에서는 진짜 거미집을 디지털화해 컴퓨터에 입력한 후 '임시 나선형 거미줄'이 완성된 시점에서 사이버 거미를 투입했더니 이 거미는 자기 주변의 거미집 모양만 가지고도 '포획 나선형 거미줄'을 훌륭히 완성했다.

생물은 긴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놀라운 특성과 기능을 갖추어 왔다. 따라서 생물 생태의 연구는 자연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볼라스 교수의 거미 연구도 이러한 방법으로 거미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8 위 글을 교양 과학서에 소개한다고 할 때, 그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미가 지닌 지혜
- 거미집의 실용화 방안
- ② 거미의 오묘한 생태
- 거미집에 숨겨진 비밀
- ③ 거미의 놀라운 생명력
- 사이버 거미 연구의 성과
- ④ 거미의 생존 방법
- 거미집을 이용한 먹이 사냥
- ⑤ 거미와 사이버 세계의 만남
- 거미집 제작에 나타난 모방의 원리

49 위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를 활용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경우는?

< 보 기 >

1963년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 환경에 대한 생명체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우주선에 거미를 실어 보냈다. 지구로 전송된 사진을 보면 '우주선 속의 거미집'은 '지구의 거미집'보다 눈에 띄게 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 ① 거미가 지을 수 있는 거미집의 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할 때
- ② 거미집의 형태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이 중력임을 설명할 때
- ③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때
- ④ 거미가 집을 짓는 순서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때
- ⑤ 우주 시대를 위한 실험의 대상으로 거미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할 때

50 [A]에 드러난 '사이버 거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들을 활용함으로써 수학의 발달에 기여한다.
- ② 자연 거미의 행동 특성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자연 거미가 도태되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 ④ 사이버 상에 흩어져 있는 자연 거미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자신의 유전자에 입력된 정보와 새로 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